

대행 스님

아주 중심에다 활을 꽂을 수 있다면 아니 되는게 없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한생각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 점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모든 일들을 하고 또 서로 주고받으면서 먹고사는, 공생으로서 공용하고 있죠. 그러니 가정에서의 어려움이나 다른 모든 문제를 각자 마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묘법이 바로 우리들의 법이자 부처님 법이고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입니다. 여러분은 부처님 법이 따로 있어서 생활과 동떨어져 있다고, 부처님 도량에 가야만 부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각자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그 체 없는 마음은 우주를 싸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청정함도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또 걸림 없는 것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도 버리지 않는 법도 갖추어 가지고 있다이 소립니다. 또 일심으로써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데 그것도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모든 재료를 가지고 있고 모든 법을 응용하고 있는 것이니 아주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유자재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처님 법은 자기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중생이니까 부처님의 그 묘한 법, 광대무변한 법은 모른다' 고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이 고등 동물로서, 한 인간으로서 태어난 것은 수억겁에 걸쳐 '아, 이런 거는 잘못된 건데….' 하고 반성하고 고치면서 살아오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인간에 이르기까지 진화되면서 마음을 그렇게 지혜롭게 썼기 때문입니다. 또 마음이 지혜롭지 못해서 아직도 짐승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물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인간까지 됐으니 인간 자체가 모두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 한번 돌리면 부처입니다. 그 부처의 마음을 내가 갖추어 가지고 있고 청정함도 나한테 있고 걸리지 않는 것도 나한테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된다면 바로 부처입니다. 그러나 그 도리를 몰라서 바깥으로 끄달리고 윤회에 끄달리고 업보에 끄달리고, 독안에 들어도 못 면하는 그런 팔자 운명에 끄달리고, 부적을 써 붙여야 잘된다는 것에 끄달리고 '내가 그냥 이사를 가면 사단이 나지. 무슨 일이나 생기면 어쩌나.' 하는 데 끄달리고, 무꾸리를 해서 좋다고 그러면 좋은 줄 알고 언짢다고 하면 언짢은 줄 알고 남의 말에 끄달린다면 중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된 도리로서 다 갖추어 가지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그렇게 약하고, 고차원적인 인간으로서 행을 못 하시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한테 "한생각의 도리를 알면 부처인 것이다. 그런데 그 도리를 모르면 인과응보에 끄달리면서 일체 모든 것이, 발 하나 떼어 놓는 대로 고(苦)니라. 네가 고덩어리니라." 그러셨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 말씀 드릴 테니 잘 들으세요.

고집멸도 사제법도 '고덩어리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면 멸해 버리느니라. 그러면 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편하게 아세요. 그걸 그냥 어렵게 생각을 하신다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가 난 게 고덩어리니라. 왜 고가 됐느냐. 내가 나기 이전의 수없는, 물질에 끄달리면서 살아 내려온 그 습이 뭉쳐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에 살면서 지은 인(因)으로 인해서, 즉 말하자면 형제의 인, 부모의 인, 자식의 인…, 착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 인에 의해서 과(果)가 되고 인과가 돼 가지고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겁니다. 부모도 바로 인연에 따라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가 뭉쳐서 고가 된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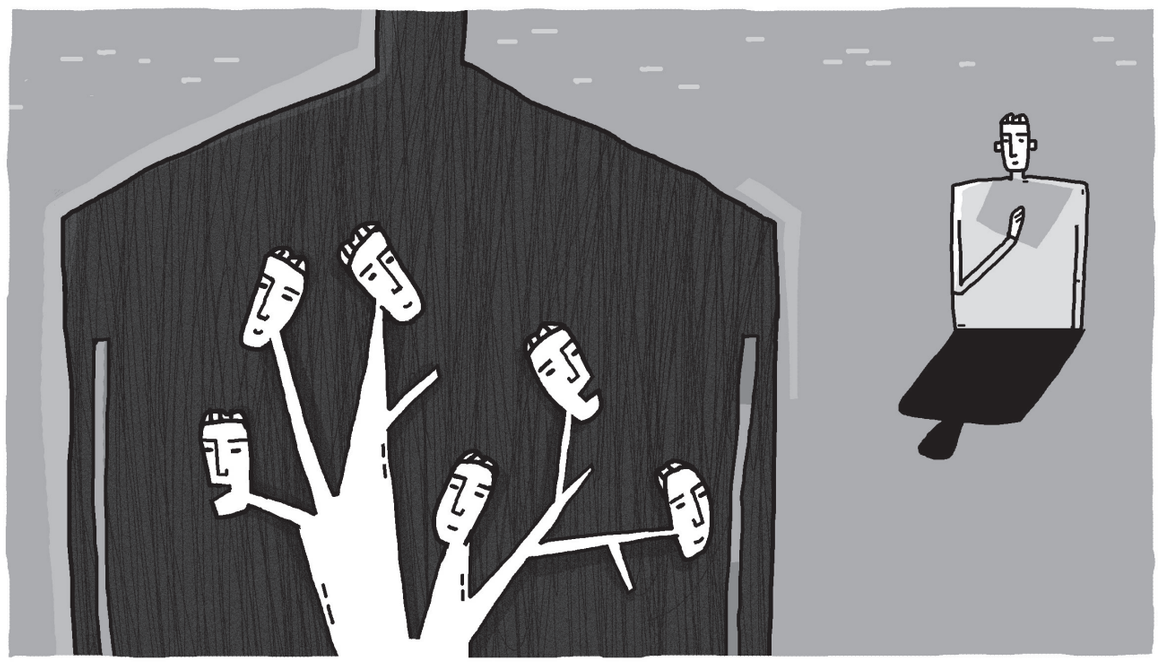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면 고가 어디 붙어 있느냐. 바로 여러분 속에 지금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천차만별로 요렇게도 생기고 길쭉하게도 생기고 모습이 죄 다르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사는 짐승들도 천차만별로 다른 모습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도 천차만별이고 짐승도 천차만별이고 사생이다, 알로 나는 거든지 태로 나는 거든지 습한 데서 나는 거든지 화해서 나는 거든지 다 천차만별로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차원도 다르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내 몸 안에 지금 수십억 마리가 돌고 있는데 그게 인과로 뭉쳐진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림을 그려 가지고 나왔지만 그 속은 내가 과거에 태어나기 이전에 살던 그 인으로 인해서, 업보로 인해서, 살던 습으로 인해서 온 인과가 뭉쳐서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악한 마음도 나오고 선한 마음도 나오고 증오하는 마음도 나오고 별 마음이 다 나오는데 그 마음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데도 잘못되는 수가 있고 잘되는 수가 있고, 장사를 하는 데도 잘되는 수가 있고 잘못되는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행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 놓고 하신다면 행과 마음과 말과 뜻이 바로 합류화돼 가지고 스스로 속이 상하질 않고 편안하기 때문에 말도 편안하게 나와서 남도 편안하게 해 줘요. 그러면 빚진 사람이 갚지 않다가도 자기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면서 '아, 저 사람에게 빨리 갚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빨리 갚게 되는 거고 빨리 받게 되는 거죠. 장사도 그렇습니다. 회사도 그렇습니다. 모두를 거느리는 회사의 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써야만이, 또 말을 어떻게 해 줘야만이, 행을 어떻게 해야만이 직원이 자기 뼈를 깎아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가? '내 사장을 살려야지. 이 회사를 위해서 저분은 참 애쓰셨는데….' 이렇게 '저분은…' 하는 이러한 마음이 스스로 생기게 해야지 강요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삐뚜로 나갔습니다. 허허허.

그런데 삐뚜로 나간 게 아니라 그것도 생활선으로 통하는 내용입니다. 부처님은 행하는 것을 가르치셨고 또 마음과 행으로써, 즉 말하자면 실천궁행을 하는 것이 그대로 부처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에 빠지거나 유(有)의 생활에 빠진다면 이건 저울이 맞질 않는 거죠. 양면이 다 맞아서 우리가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부처님 법이 돼야 되겠죠. 동떨어져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몸뚱이의 고' 라고 했는데, 그래서 고집멸도 사제법은 '집착을 하지 마라. 집착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놓게 된다. 그냥 용광로에 놓는 작업만 하라. 그러면 스스로 바로 재생이 돼서 나간다. 그것이 집착을 하지 않고 놓는 것이다. 그러면 멸한다. 멸하면 도니라.' 이겁니다. 얼마나 간편합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얘기해 드리죠. 내가 지금 몸에 들어 있는 그 인과응보에 의한 의식 자체를, 수십억 마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지배인이라고 생각합시다. 지배인이 모든 부하를 인솔하는데 마음을 잘 써 주면, 둘이 아니게 써 준다면 그 수십억 마리가 모두 한마음으로 따라 줍니다.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장 공장, 위 공장, 이 공장 저 공장, 이렇게 여러 군데에 공장이 있어도 마음은 체가 없으니 지배인의 한마음이라면, 내가 지금 살면서 한 마음을 잘 쓴다면 이 속에 있는 그 수십억 마리가 한마음으로 뭉쳐 줍니다. 그래서 묘법인 것입니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이런 공부를 해서 미래에 천당에 간다, 승천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 자체입니다. 그래서 과거도 따로 없고 미래도 따로 없고 현실 일도 찰나 생활이기 때문에 '무(無)다' 이런 겁니다. '공했다' 이런 거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하고 무척 고민하면서 여러분을 대하는 겁니다. 책을 보고 이론으로써 학식으로써 지식으로써 여러분한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연구해서 체험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행해 본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악업과 선업이 한데 뭉쳐 있는데 악업도 여러분의 법이 아니요 선업도 여러분의 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법인가? 여러분이 마음 쓰고 행하는 것이 그대로 법인 겁니다.

왜 자기를 자기가 못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 A18면으로 계속

현대불교신문과 함께하는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12일

지도법사 : 대연스님
한국 유일의 인도 · 네팔 불교성지순례 가이드북의 저자이시며 인도를 30회 이상 다녀오신 대연스님이 직접 안내와 설명을 하는 성지순례입니다.

현대불교신문 성지순례는
■ 지도법사스님의 신심나는 설명과 유익한 순례를 약속합니다.
■ 인도불교미술에 대한 심도있는 설명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전문 가이드가 진행합니다.
■ 쇼핑 옵션이 없습니다.
■ 동참하신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주요일정

1일 : 인천 - 델리(인도항공 AI 0313) 인천국제공항 1청사 10시 05분 출발
2일 : 델리 - 국내선 - 바라나시 - 초전법륜지 녹야원, 사르나트 박물관 관람
3일 : 바라나시 겐지스강 보트 유람 - 항하사 - 부다가야
4일 : 보드가야 순례, 보리수, 마하보디 대사원, 전정각산, 수자타탑, 네란자라강
5일 : 최초의 사원 죽림정사, 영축산 여래향실, 칠엽굴, 날란다 대학 순례, 바이샬리 도착
6일 : 바이샬리 : 부처님 진신사리탑, 대림정사 중각강당, 원숭이 연못, 아소까 석주 순례, 께사리아 발우탑 순례, 열반성지 꾸시나가르 도착 - 열반지 쿠시나가르 : 열반당
7일 : 쿠시나가르 - 인도 - 네팔 국경 통과 - 부처님의 진신사리탑 랑그람 순례, 룸비니 도착
8일 : 탄생성지 룸비니, 석가족의 왕궁 카필라바스투, 네팔 - 인도 국경 통과, 삐쁘라흐와 진신사리탑 순례, 쉬라바스티 도착
9일 : 기원정사, 사위성, 앙굴리말라 회심처, 천불화현탑 순례 럭나우 경유 아그라 도착
10일 : 타즈마할, 아그라성(城) 관광, 뉴델리로 이동
11일 : 국립박물관 -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꾸뚭미나르, 연꽃사원, 뉴델리 관광 뉴델리 국제공항 출발(인도항공 AI 0312) 21시 50분
12일 : 인천국제공항도착 08시 15분

출발일 : 2022년 11월 1일~12일 동참금 : ₩2,990,000

문의 : 현대불교문화사업단 02)2004-8213, 730-4008 순례진행 : (주)케이투어 아제여행 불교성지순례&특수지역전문 http://www.ajetour.co.kr/